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이 승 열
카고저어널 편집국장

경제학에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말의 그레섬의 법칙(Gresham's law)이 있다. 품질이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가 동시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품질 좋은 화폐는 차츰 자취를 감춘다는 금융론(金融論)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칙은 영국의 토마스 그레섬이 16세기 악화를 개주(改鑄)하여 외국환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언한 편지 속에서 나온 말을 1858년 M.D 마크로드에 의해 명명된 법칙이다.

가령 어느 한 사회에서 은의 함유량이 떨어지는 은화(악화)와 함유량이 많은 은화(양화) 두 종류의 은화가 금융상 동일한 가치를 가졌지만 은 함유량이 많은 화폐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유통될 경우 사람들은 악화만을 그 명목가치로 유통시키고 양화는 그 소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보로서 이용하거나 혹은 가지고 내놓지 않으므로 유통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된다.

우리 나라 근대화폐의 변천사를 살펴봐도 이 법칙이 적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개항 이래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상인들이 왕래하게 되어 개항지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화폐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외국화폐로는 일본의 일원은화, 멕시코의 루우불은화 및 마제은(馬蹄銀) 등이 있었으며 그 소재는 모두 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국제거래상 아주 불편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종 19년인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은화인 대동일전(大東一錢), 대동이전, 대동삼전 등 대동은전이 제조되어 종전의 상평통보와 나란히 유통되었다. 이와 같이 비금속으로 만들어

진 질 나쁜 화폐와 귀금속인 질 좋은 화폐가 함께 유통되자 곧 그레섬의 법칙이 적용되어 대동은전은 발행 직후 퇴감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고종 20년인 1883년 6월에 이르러 주조가 정지됐다.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

그레섬 법칙은 화폐와 관련한 학설이지만 오늘날처럼 주화(鑄貨)보다는 신용화폐가 중심이룬 시대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의 뜻밖에 지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등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에 의해 나타난 결과 중에서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상쇄시키고 더 부각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H. A. 사이먼은 이 법칙을 경영의 의사결정문제에 전용(轉用), 「계획의 그레섬 법칙」을 발표했다. 그는 경영관리자가 정형적(定型的) 결정 책임과 혁신적 결정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일상적인 정형적 문제처리에 쫓겨 기업의 환경적응을 피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나 혁신적 결정이 희생되는, 즉 혁신적인 계획이 종전의 정형적 계획에 밀려 나가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형적 결정의 사무처리량이 늘어나고 더욱이 정형적 결정에는 일정한 기한에 있는데 비해 전략적 결정이나 혁신적 결정은 문제의 발전을 놓치는 수가 많으며 이의 결정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로 미루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 혁신적 결정에는 모험이 따르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업에 새로운 이익 원칙을 가져다 주는 것은 혁신적 결정이다.

또한 경제의 경우를 들어보자.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려고 금리하락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효과보다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는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정책적인 잘못으로 그레섬의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잡초를 끊임없이 솟아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논이 잡초밭이 된다.』는 농부들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식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면 매매차익을 위해 어느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다. 그러나 하락하는 경우 팔기를 주저한다. 또 매각할 때에는 상승한 종목을 우선 팔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남겨두려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점차 좋지 않은 주식이 우량주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유주식의 구성이 불량해지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레섬의 법칙이 철저히 도입된 경우도 있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여인천하」에서 개혁을 주창하던 조광조가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에 의해 사약을 마시고 죽는 장면이 나온다. 이 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정치권에서도 가가 막히게 적용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보다는 목소리 크고, 악 잘 쓰고, 막말하는 정치인일수록 인기를 얻어 세력을 구축, 정도(正道)를 걷는 정치인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포워딩 업계도 그레섬의 법칙이 적용 돼

또한 요즘 각 매스컴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각종 비리 관련 뉴스의 주인공인 특정 계층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순박한 사람들과 관련한 뉴스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 또한 그레섬의 법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남을 쉽게 믿을 수 없으려니와 믿어서는 안 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정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 바

보 취급을 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득세함으로써 인간 악화가 인간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섬의 법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그레섬의 법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제물류업계, 특히 포워딩 업계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업체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운임으로만 고객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운임덤핑 등 업계의 무질서를 초래해 결국 다국적 포워더들에게 국내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최근 국내외 여건과 맞물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 앞으로 국내 포워더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각종 부대서비스 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운임의 차액으로만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포워더의 현실이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업체들이기는 하지만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업체간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휴를 통해 국제물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어느 포워더나 정당한 운임과 부대요금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받으려고 해도 타 포워더의 저운임과 노마진 부대서비스 제공 공세로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심지어 거래하고 있던 화주마저도 어느 포워더와 같이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단 운임 등의 문제만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금세 배끼기 경쟁을 하니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악화 포워더가 양화 포워더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